

도시이미지의 구축에서 공감의 문제 연구: 일본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수희** 김봉채*** 이병민****

| 목 차 |

I. 서론	문제
II. 도시이미지의 진정성과 공감	IV. 결론
III. '평화도시 히로시마'와 공감의	

| 논문요약 |

히로시마는 원폭투하의 상흔을 간직한 도시이다. 히로시마는 도시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하기 위한 정체성으로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그러나 '평화도시'로서의 그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온전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한 듯 보인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이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도시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공감'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히로시마 '평화도시구상'의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고, 도시 공간의 구성과 관련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의 진정성에 근거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때 진정성은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 도시이미지의 진정성은 도시에 대한 공감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는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로 확장되기도 한다. 특히,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윤리적 책임 소명과 객관적 시선에 의한 '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즉, 도시이미지의 구축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감정적 공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 사회적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7374).

** 제1저자: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SSK연구교수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합의로 대변되는 사회적 공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 주제어 : 도시이미지, 사회적 공감, 히로시마, 평화도시, 다크투어리즘

I. 서론

어떤 도시를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감성적 이미지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이미지들이 다수에게 공유된 대표성을 가진 도시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도시이미지는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 지역에 대해 갖는 일련의 신념’(Kotler 1986)이며, ‘특정 지역(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 혹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Boulding 1956)로 설명된다. 즉,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도시경험이 발생시킨 정서적 차원에서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주관적인 이미지들로 형성된다. 때문에 한 도시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도시이미지들이 다수에 의해 합의되고 공감을 얻는다면, 이것은 한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발전한다. 이때의 도시이미지는 더이상 정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상징이 되며, 더 나아가 도시브랜드로서 도시를 이끄는 가치와 비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때때로 도시들은 전략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도시가 가진 기존의 여러 이미지들 중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강화, 보완, 생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이미지는 도시 내부(혹은 전략기획자)의 의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 내부로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정체성과 함께 도시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gaze)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때문에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도시의 기억은 전략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화자산은 도시 내외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

용한다. 특히, 도시의 역사는 내부구성원들에게는 직간접적 경험의 기억인 동시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또한, 외부인들에게는 도시에 대한 간접적 이해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일본 히로시마(廣島)는 특별한 도시이미지를 갖고 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이후, 히로시마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전쟁의 상흔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 이 역사적 사건은 7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를 ‘원폭피해도시’, ‘2차 세계대전’, ‘피폭도시’와 같은 이미지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히로시마의 도시이미지는 해당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부정적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의 입장에서 정체성이라는 명목 아래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만을 기억하며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그 사건은 모든 것을 앗아간 잊고 싶은 기억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히로시마의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로시마는 이를 위해 사건 직후부터 재건하는 도시의 키워드로 ‘평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에 들어갔다. 그러나 히로시마시의 도시이미지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가 가진 역사적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보다는 전쟁의 상처를 연상시킨다. 히로시마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원폭돔, 희생자추모비 등의 관련 유적들 역시 원폭투하 당시의 히로시마를 떠올리게 만든다.

한편, 최근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히로시마는 대표적인 다크투어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장소 혹은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의 형태이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 자연재해, 참사 등 불편하고 혹은 소외되었던 역사적 장소에 주목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관광과는 달리 관광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본질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크투어리즘의 속성은 행위가 담고 있는 가치와는 별도로 투어의 해당 도시는 부정적 장소이미지를 가진 지역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다크투어리즘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준다. 다크투어리즘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장소성을 활용하여

지역이미지를 쇠신하고 경제적 이윤을 발생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시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관심일 수도 있다. 몇몇 연구들은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지 주민들이 트라우마의 반복적 경험, 지역이미지의 훼손 등과 같은 내부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는 히로시마가 다크투어리즘을 수용하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히로시마는 원폭과 관련된 기억을 활용하여 도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원폭’과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 ‘평화’라는 2차 키워드를 통해 접근한다. 예를 들어, 원폭과 관련된 유적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다크투어’ 대신 ‘평화투어(peace tourism)’로 명명하여 소개한다. 이는 히로시마시가 주장하는 평화도시·평화기념도시 구상의 일환이며, 한편으로는 다크투어리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내부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히로시마의 경우, 일반적인 다크투어의 대상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정 장소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도시 자체가 그 대상이 된다. 때문에 히로시마는 다크투어리즘을 위해 부정적 어휘나 이미지들을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시의 정체성, 도시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히로시마 다크투어의 배경이 전쟁이라는 국제사회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과 이미지의 조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결국, 히로시마는 도시가 가진 부정적 역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히로시마는 도시가 처한 입장을 진술한 바와 같이 ‘평화도시’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의 역사는 히로시마라는 도시가 왜, 어떻게, 이토록 평화를 염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이자 원인으로서 사용된다. 실제로 이 도시가 원폭과 관련된 유적과 역사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의 정체성이자 도시이미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접근은 꽤나 설득력을 가진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또 다른 주체이자 타인으로서 전쟁의 역사를 공유한 동아시아의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히

로시마의 평화도시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반감에는 전쟁의 역사와 관련된 피해의식이 일부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피해의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도시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의 문제이다.

도시이미지는 도시구성원의 정체성과 외부로부터의 시각이 더해지며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외부인의 기억과 평가는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히로시마와 같이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는 도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에 외부인인 우리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히로시마의 도시이미지 전략은 과연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히로시마의 사례를 통해 도시이미지의 구축에 있어서 ‘공감(empathy)’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도시이미지의 진정성과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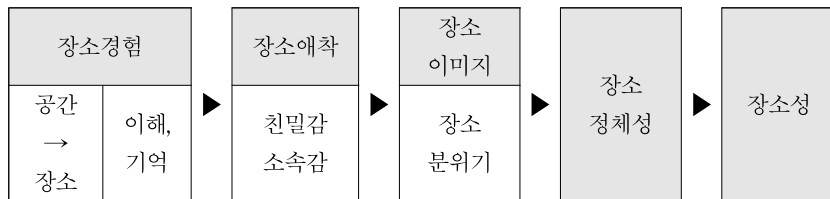
1. 도시이미지와 진정성

누군가에게 ‘히로시마’는 일상의 공간이다. 한편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히로시마’라는 도시를 두고 형성된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는 모두 히로시마를 상징하는 도시이미지이다. 여기에는 히로시마의 ‘장소성(placeness)’이 반영되어 있다.

장소성은 특정 장소에 인간의 경험이나 활동이 더해지며 만들어지는 장소에 대한 의미를 뜻한다.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해 집단적으로 인식되는 장소의 정체성(place identity)으로, 장소의 경험을 통한 애착(place attachment)과 장소에 대한 집단의 인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형성된다(어정연·여홍구 2010). 이때 장소경험은 직·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특정 공간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통해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장소의 피경험자는 개인 혹은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

고, 이를 장소에 대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된다. 다시 장소에 대한 기억은 장소가 가진 정체성과 결합하며 특정 장소의 ‘장소성’으로 발전한다(정수희 2017).

<그림 1> 도시의 장소이미지와 장소성의 구축 과정



▪ 정수희·이병민(2015)

장소성은 장소에 대해 형성된 집단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며, 도시 내외부의 환경과 주체들 간의 소통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도시의 장소성은 특정 이미지로 한정되어 고착되거나 일방적인 목적에 의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장소성은 해당 도시의 ‘근원적인 것(origins)’과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s)’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Zukin 2010). 때문에 도시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의해 도시의 정체성과 이상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때의 정체성은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역사, 전통, 관습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도시 안에서 형성된 도시의 가치이자 정체성이다.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를 결속시키는 동력인 동시에 도시의 이상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도시가 가진 자원들은 도시의 이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재구성되고, 이는 도시구성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도시의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성은 도시 내외부의 구성원들로부터의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공감(empathy)을 통해 한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이미지로 발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성을 가진 도시이미지란 과연 무엇인가. ‘진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진정성을 ‘진짜’를 입증하는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접근한다. 그들에 의하면 진정성은 어떤 것에 대한 ‘진짜’를 기획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김지나 2016). 즉, 진정성이란 정체성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이해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타인의 공감을 획득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관광학은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관광학에서의 진정성은 관광객의 욕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규정되며 관광 형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논의가 확장되어 왔다. 진정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원본에 대한 진짜/가짜의 여부로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객관적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후, 이분법적 진짜와 진짜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진정성이 고정된 가치가 아닌 상대적이며 특정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는 다시 대상(object)에 대한 진정성의 논의를 주체(subject)로서 관광객의 주관적 느낌에 의해 만들어지는 실존적 진정성(Wang 1999)의 논의로 확장됐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현대적 진정성(Contemporary authenticity)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도시의 관광객은 외부인으로서 도시를 방문하고, 관망하며, 또는 적극적으로 경험하며 도시에 대한 기억을 만든다. 때문에 이들은 도시이미지를 결정짓는 외부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들이 도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도시이미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현대 관광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유발되는 개인의 감정과 느낌이 중요해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도시 경험은 도시이미지 형성에 있어 더욱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키케로(Cicero)의 말처럼(알라이다 아스만 2011, 391 재인용), 도시가 가진 특별한 기억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당성, 그리고 문화의 목표를 설명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윤현호 외 2011, 269). 특별한 기억은 도시가 특정 사건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객관적 진정성을 형성하는 데 근거로서 작용한다. 히로시마와 같이 어두운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도시의 이미지는 실존적 진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쟁과 재난, 죽음에 대한 간접경험은 개인의 감정과 느낌으로 해당 도시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키고, 이미지화하는 데 강렬하게 작용한다. 또한, 특정 역사나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구성적 진정성의 문제는 도시의 총체적 진정성을 구성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조아라 2013). 구성적 진정성은 도시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관계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시 히로시마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히로시마의 기억은 ‘전쟁’에서 시작된다. 전쟁의 기억은 도시가 가질 수 있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근거한 부정적 기억들과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 전쟁은 이념이나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적 맥락에 의해 일어난 인재이다. 때문에 전쟁의 역사와 그 기억에 대한 해석은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한다. 이를 도시의 콘텐츠로 혹은 도시의 이미지로 차용하는 데 있어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성급한 일반화를 통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 도시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확장된 범주에서 도시와 타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역사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도시의 전쟁의 역사를 도시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도시는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때로는 전쟁의 상대방일지도 모르고, 혹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제3자로서의 외부인의 시선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수용 가능한 범주 내에서 재해석과 변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단, 전쟁과 같은 특수한 배경이 아니더라도 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되는 과정에서 도시 내외부의 보이지 않는 합의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이미지는 도시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공감의 문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2. 도시이미지와 사회적 공감

도시이미지에 대한 합의는 도시가 가진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공감(empathy)’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공감’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공감이란 타인의 문제에 대한 포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피상적인 연민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혜적 관계를 의미하는 동정이나 연민과는 구별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자 능력을 의미하며, 타인이 처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지, 그에 대한 이성적·감정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공감은 타인에 대해 공감하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정의되기도 한다(유찬기·남기범, 2018).

최근에는 공감을 이해하는 시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깨달음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도구로서 확장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2010)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를 통해 인간의 본능에 기반하여 공감에 대해 탐구하며, 공감하는 인간으로서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를 소개하며 인간의 공감능력 발달과정을 논의했다. 인간이 가진 관계적 성향은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장원호 2019). 이와 같은 리프킨의 주장은 인간의 ‘공감’이 개인의 정서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내포한다.

최근에는 정치적 문제와 같은 이성적 영역에서도 감정의 해결을 통한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문경희 2017). 사회적 공감은 제도화된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장원호 2019). 이는 타인의 삶이나 상황을 경험하고 구조적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Ahmed(2013)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통해 나와 타자 사이의 우연한 유대성(contingent attachment)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고통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유대는 윤리적 행위성에 근거하며, 고통의 원인과 책임문제의 규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공감의 핵심이 사회적 윤리에 근거한 사회적 판단(social justice)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갈(Segal)이 제안한 사회공감지수(The Interpersonal and Social Empathy Index: ISEI)의 항목 중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고려, 타인과 나의 감정에 대한 차이,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이 주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 있다(장원호 2019 재인용).

그렇다면, 도시이미지와 사회적 공감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영역적 개념으로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는 내외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유기체이다. 때문에 도시는 다양한 관계와 이들 사이의 유대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이 유대는 도시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이해, 통찰을 통한 공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도시이미지는 해당 도시가 가진 상징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도시가 가진 정체성의 발견과 상징화, 이에 대한 공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 안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을 통해 형성된다.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이미지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전략적으로 이를 접근하기도 한다. 즉, 도시는 다양한 문화자원들 중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의 대표성을 가진 자원으로 선택·집중하여 개발한다. 도시의 상징성에 근거한 도시이미지는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이미지가 도시의 경쟁력으로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해당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공감을 획득해야 한다. 앞서 도시이미지가 도시 내외부의 시선이 합치되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한 바와 같이, 이는 도시 내부의 일방적인 전략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시이미지의 공감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와 관련 있다.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검증의 문제와 연결된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들의 진정성을 통해 해당 도시의 도시이미지를 정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는 다시 다차원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수용과 검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접근하게 된다.

도시이미지에서 공감의 문제는 해당 도시에 대한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공감(universal empathy)으로의 확장으로 연결된다. 이는 도시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가치로서 공감을 획득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됨을 말해준다. 도시이미지는 도시가 가진 특수성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상징화하고 대표성을 가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로의 전환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재난을 당한 도시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미지는 재난 자체의 키워드가 아닌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순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를 도시이

미지의 ‘보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전환되는 상징성은 사실관계에서 수요 가능한, 사회적 윤리 판단에서 동의가 가능한 확장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비약이나 이상화, 비논리적 일반화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보편적으로 공감가능한 선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도시 내외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도시이미지에서의 보편적 공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공감을 통해서 비로소 도시이미지는 진정한 도시이미지로서 도시를 대표할 수 있게 된다.

Ⅲ. ‘평화도시 히로시마’와 공감의 문제

이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히로시마가 도시의 기억을 도시이미지로 전환시켜 온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의 기저에는 히로시마가 오랫동안 구축해 온 도시이미지 전략이 기억의 일부이자 타인으로서 방문객인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를 감정이 아닌 학술적 근거를 통해 찾아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히로시마는 원폭투하 이후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도시의 부정적 기억을 덮고, 새로운 이미지로의 전환을 위해 ‘평화도시 구상’을 발표한다. 평화도시 구상은 전쟁의 기억을 ‘평화’라는 보편적 인류가치로서 전환하여 접근한다. 평화도시 계획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히로시마를 잇는 중심축인 동시에, 현재의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정체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 속에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히로시마의 도시구상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다. 다시 그 중심에는 히로시마의 원폭 기억과 그 이후의 행적을 담고 있는 평화기념자료관과 오리즈루타워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도시전시관으로 독자적인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집단의 기억의 토대를 형성하는 공간인 동시에 방문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여기서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의 과정과 함께 이들 도시전시관의 공간 및 전시 구성을 통해 히로시마의 도시스토리텔링과 이미지 구축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히로시마의 원폭투하와 ‘평화도시’ 전략의 배경

히로시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투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시이다. 20세기 초중반, 당시의 히로시마는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지방도시 중 하나였다. 특히, 전쟁을 배경으로 일본 육군의 병참기지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이기도 했다. 1894년 중일전쟁을 통해 군인과 병기 수송을 위한 주요 철도가 히로시마와 우지나 항구에 연결됐으며, 1945년 히로시마만 지역은 해군 시설과 함께 군사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본제강소히로시마제강소, 동양공업, 육군피복지청,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히로시마기계제작소 등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즉, 군사도시인 동시에 그들의 무기제조창의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였다. 이후, 히로시마에는 교육시설이 건립되고 20세기 정치, 경제, 지식과 교통의 허브로 발전하여 노스텔지어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일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Yoshida et al. 2016 재인용). 또한 히로시마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원주민 외에도 군인, 조선인 징용자, 공장 등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약 35만 명 정도가 머물며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도시였다(정근식 외 2015).

이와 같은 도시의 성장과 입지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히로시마가 원폭투하 지점으로 선정되는 이유로 작용했다.¹⁾ 미국은 포츠담회담 결과, 일본의 항복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 중 한 곳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고, 히로시마는 제1목표로 선정됐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우라늄형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다. 그 이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다. 원폭투하 일주일 후,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패전국으로서 전쟁의 폐해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됐다. 히로시마 역시 원폭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처와 함께 자신들의 도시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은 원폭투하의 피해를 비

1) 원폭투하 당시 인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히로시마의 상징이 된 원폭 돛 역시 히로시마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어진 상업전시관이었다.

못한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복구와 도시의 재건의 의지를 보여주는 용어로 시작됐다. 초기의 히로시마에서 평화도시는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국가나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응당한 가치로서 시작됐다. 패전 이후 일본사회 역시 ‘평화’라는 키워드가 유행처럼 사용됐고, 히로시마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도시부흥을 위한 구호로 이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권혁태 2009).

이후, ‘히로시마 평화기념 건설법’(이하 평화도시법)이 제정되며, ‘평화도시’ 히로시마는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49년 8월 6일 공포된 ‘평화도시법’은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 부흥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동시에 현재까지 히로시마의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후, 1950년 발표된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 구상 시안’은 평화운동의 근거지 구축에 필요한 시설과 평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1952년 3월에 구체적인 안이 결정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55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그들의 계획대로 완성됐다.

<표 1> 히로시마 평화도시 전략의 주요 계획

평화도시 관련 계획	발표시기	주요 내용 및 특징
‘히로시마 평화기념 건설법’ 제정	1949년 8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 평화를 성실히 실현하자는 이상의 상징으로서 히로시마를 평화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 최초의 주민투표 - 정부의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 구상’ 발표	1950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운동의 근거지 구축에 필요한 시설 - 평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 건설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 구상’ 최종안 결정	1952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심지에 용지를 확보하여 기념시설을 건설 - 히로시마성 및 구육군용지가 있는 모토마치에 중앙공원을 건설하고 경기장 등의 시설을 건립 - 시 중심부에 동서로 뻗는 100m 평화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20-30m의 간선도로를 중횡으로 500m 간격으로 배치하고 보조도로는 폭 6-20m로 함 - 시내를 관통하는 6개의 하천을 녹지대로 함

초기의 히로시마 평화도시 계획은 도시이미지의 쇄신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히로시마의 평화도시로의 계획은 원폭으로 무너진 도시의 환경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점차 도시의 외형적 정비와 개발뿐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으로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는 자신들이 원폭의 첫 피해지라는 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 원폭돔과 같은 상징물이 남아 있다는 점, 많은 수의 추모비와 추모시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원폭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도시재생을 이루어냈다는 점 등을 통해 원폭피해지역으로서의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들은 히로시마 원폭유산이 가진 객관적 진정성을 인정받게 했다. 그 결과, 원폭 관련 유산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원폭돔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²⁾

2. 도시 전시공간을 통한 평화도시로의 스토리텔링

전후 시작된 평화도시 계획은 지금도 히로시마를 움직이는 도시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건립된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현재의 히로시마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히로시마의 원폭 관련 시설은 원폭돔을 비롯해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이 일대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구상의 결과로 조성된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 중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이하 평화기념자료관)과 오리즈루타워(Orizuru Tower, 折り鶴タワー)는 도시를 대표하는 전시공간이다. 도시전시관은 도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한다. 이 두 시설은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평화도시로서 히로시마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2)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히로시마 원폭돔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탈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림 2> 히로시마평화공원 전경



▪ 히로시마시 홈페이지³⁾

<그림 3> 히로시마 원폭돔



▪ 저자 촬영(2019. 1. 8)

평화기념자료관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다른 원폭유적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자료관의 소개 자료에는 이곳이 원폭의 위험성과 함께 히로시마의 원폭피해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피폭 당시의 자료 3만여 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화기념자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 전체공간을 활용하여 무료와 유료공간으로 분리되어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도입(Part 1)-핵무기의 위험성(Part 2)-히로시마의 행보(Part 3)의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원폭투하 이전의 히로시마와 원폭투하라는 사건-핵무기의 위험성-히로시마의 피해와 극복/히로시마의 노력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후반부로 갈수록 히로시마가 원폭투하라는 비극적 재난을 결국 극복해냈으며, 고통의 피해자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전시 플롯은 다크투어리즘의 전시공간 및 스토리텔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한 예로, 고베시의 ‘인간과미래방재센터(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⁴⁾는 한신대지진으로 인한 고베시의 피해와 극복 과정을

3) 히로시마시, <http://www.city.hiroshima.lg.jp>. (2019년 4월 20일 검색)

4) 고베의 사람과방재미래센터(阪神・淡路大震災記念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Memorial Disaster Reduction and Human Renovation Institute)는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2002년에 건립되어 공익재단 효고 지진재해기념 21세기연구기구가 운영 중인 시설이다. 시민 협동 방재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신·아와 대지진 경험을 전승하고 교훈을 남겨 재해 대비 문화 형성과 지역의 재해 방재력 향상 및 방재 정책 개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 방재 부흥 협력기구(IRP), UN국제방재전략사무국(UN, ISDR) 주일사무소, UN인도주의업무 조정국(UN, OCHA) 고베, 아시아방재센터(ADRC) 등의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방재 연구 거점으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다루고 있다. 이들 역시 그들이 겪은 재난을 ‘갑작스러운 재난-재난으로 인한 고통-극복-도시의 재건과 부흥’이라는 유사한 구조 속에서 전달하고 있다. 전시는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도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슬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게 만든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그럼에도 극복하여 도시를 재건해낸 고베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응원과 감동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유사한 플롯을 전개하는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플롯은 일부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거북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불편함은 해당 공간의 전시구성과 기술적 구현의 차이라기보다는 소재를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과 미래방재센터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 가치’와 그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전시를 풀어나간다. 반면, 평화기념자료관은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재난이 인재(人災)에 의한 재난임에도 고베의 전시관이 그랬듯이 보편적 가치로서 접근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화기념자료관이 전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시의 도입부는 원폭이 투하된 시점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멈춰진 ‘원폭시계’의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된다. 이는 히로시마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로 회자되기도 한다. 히로시마는 원폭시계의 시간이 8시 15분에 멈춰 선 것과 같이 자신들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와 분리, 피폭의 역사로 전환시킨다. 즉, 히로시마의 기억을 전쟁의 과정과 원폭투하의 배경, 그로 인한 패전의 역사와 분리하여 재구성한다. 원폭 이전의 상황에서 분리, 피해자로서의 입장에 집중한다. 이후 전시의 전개 역시 피폭으로 인한 히로시마인들의 고난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히로시마가 평화를 염원할 수밖에 없는 평화도시가 되는 정당성을 ‘종이학’이라는 감성적 키워드를 통해 접근한다. 이 이야기는 원폭투하 이후 백혈병에 걸려 고생하다 12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사사키 사다코라는 소녀가 회복을 기원하며 종이학(折り鶴, 오리즈루)을 접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이학은 히로시마를 관통하는 반전과 반핵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평화기념공원 내에는 사다코를 기리는 추모비와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료관 내 뮤지엄샵에는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사다코는 무고하고 숭고한 피해자로

서 히로시마인들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평화기념공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에는 이곳에서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철저히 ‘피해자’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실제로 자료관을 비롯한 공원 내의 기념조형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의 모습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은 자신들은 전쟁의 책임자로부터 분리, 단지 무고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표 2>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구성과 주요 내용

Part 1. 원폭 이전 히로시마와 원폭투하		Part 2. 핵무기의 위험성		Part 3. 히로시마의 행보
원폭시계	원폭투하 디지털영상	원폭의 공포	사다코의 이야기	평화의 수호자로서 히로시마의 노력
				

평화공원 인근에 2016년 9월 조성된 오리즈루타워는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서의 히로시마를 보여준다. 오리즈루타워는 히로시마의 지역기업으로 자동차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쓰다(MAZDA)사에서 조성한 공간으로, 문화공간과 오피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은 상품판매 공간인 물산관(1F)과 타워 상층부의 전망대 및 카페, 유료 체험공간(12F, RF) 등이 있으며, 종이학을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그림 4> 오리즈루타워(좌)와 원폭돔(우)

<그림 5> 오리즈루타워 건물 전경



건물의 1층에 위치한 바(bar)와 식당, 물산관은 감각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공간이다. 물산관은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토산품들과 히로시마 로컬 브랜드의 상품 1000여 점이 판매되고 있으며, 한쪽에는 종이학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체험공간은 건물의 고층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공간은 왼쪽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놀이방식의 참여형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⁵⁾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히로시마의 언덕(ひろしまの丘)’이라는 이름의 전망대(RF)는 외벽을 오픈형 유리벽으로 설치하여 히로시마의 전망을 내려다보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 겸 카페이다. 이 공간은 유리벽을 통해 왼쪽돛을 비롯한 평화기념공원과 히로시마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데, 과거 피폭 현장의 잔재와 이를 극복한 히로시마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한 층 아래 위치한 체험공간(12F)은 ‘종이학’을 소재로 체험, 디지털체험존, 작은 규모의 관련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객은 12층에 도착하면 종이학종이를 받아 ‘사다코가 피폭으로부터의 회복을 기리며 접었던’ 종이학을 접고, 오리즈루타워의 외벽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유리벽에 자신이 접은 종이학을 날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 히로시마가 평화를 염원하는 활동의 일부에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체험부스 옆으로는 센서를 통해 몸짓으로 종이학을 접어보거나, 일본적 색채로 불꽃놀이를 형상화한 게임형 디지털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나오는 출구는 외부와 연결된 계단에 슬로프를 설치, 마지막까지 유쾌함을 가지고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오리즈루타워는 어떤 면에서 히로시마와 관련된 키워드를 굳이 연상시키지 않는 문화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옥상의 전망대나 바, 레스토랑 등은 히로시마의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도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공간의 유쾌함을 즐기다 보면, 문득 히로시마의 피폭의 역사

5) 오리즈루타워의 홈페이지 첫 화면은 오리즈루타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히로시마-처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느끼는 히로시마. 여러 방식으로 느끼는, 히로시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세토내해의 바람을 맞으며 각자가 품은 미래에 대한 생각, 히로시마에 대한 생각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경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한꺼번에)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 그것이 오리즈루타워입니다.” 오리즈루타워, <http://www.orizuru-tower.jp>. (2019년 1월 10일 검색)

와 사다코를 떠올리게 된다. 사방으로 뚫린 전망대의 유리벽 너머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평화기념공원의 모습과 재건된 도시로서의 히로시마의 모습은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도시의 경관을 통해 보여준다. 평화로운 히로시마에 드리운 원폭이라는 절대적 공포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며 평화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도록 유인한다. 평화기념자료관이 히로시마가 왜 평화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오리즈루타워는 공간의 체험과 사색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표 3> 오리즈루타워의 공간 구성

1F	12F		RF
상공공간(상점, 레스토랑, 바)	디지털 체험공간	중이학접기 체험	‘히로시마의 언덕’ 전망대
			

▪ 오리즈루타워 홈페이지⁶⁾ 및 저자 촬영(2019. 1. 8)

3. 평화도시 히로시마와 ‘공감’: 평화도시 히로시마는 공감되었는가

이상 히로시마가 평화도시 구상의 배경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평화도시에 대한 히로시마의 의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평화기념자료관과 오리즈루타워의 공간 및 전시구성을 간략히 살펴봤다.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구상은 원폭투하로 인한 도시의 파괴와 피폭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건계획의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점차 상징화되며 히로시마적 사고로 각색됐다. 이 과정에서 평화도시는 더이상 내부 구성원들의 희망을 위한 도시 구호로 머물지 않고, 외부인들을 향한 도시이미지이자 도시 브랜드로 전환되어 갔다.

6) 위의 사이트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 도시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원폭투하’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시작된다. 역사적 사실이 상징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억을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분리하여 원폭에 의한 희생의 문제로 철저히 전환시켜 ‘피폭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전쟁과는 무관한 무고한 피해자로서의 ‘도시 히로시마’와 ‘히로시마의 시민들’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단한 노력과 용기를 통해 반전과 반핵의 수호자로 성장한 히로시마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도시이미지의 구축과정은 도시자원의 선택과 집중, 해석과 전환을 통해 도시 내부의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히로시마는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히로시마의 시민으로서’ 역사·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이러한 결과는 그간 진행되어 온 평화도시 전략이 내부구성원들이 도시의 부정적 기억을 극복하고,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히로시마의 변화와 발전은 도시를 방문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시를 경험하는 외부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히로시마에 남아 있는 원폭 유산과 관련된 문화시설들은 히로시마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슬픔’과 ‘아픔의 공간’임을 기억하게 한다. 또한, 인류 최초의 원폭투하지라는 상징성은 이곳을 더욱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하게 만든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 시민들 대상의 무차별 대량사살의 잔인함과 ‘핵무기’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며, 인간으로 근원적인 삶과 죽음의 의미, 반전과 반핵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히로시마’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평화도시’라는 점에 한편으로 수긍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 곳곳에 내재된 히로시마의 ‘평화도시’에 대한 입장은 히로시

7) 히로시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평화교육’이라는 형태로 원폭체험이 계승되어 왔다. 또한, 히로시마대학은 재학생들에게 필수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 구성원들도 이를 대학의 차별화된 문화로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히로시마대학 장경재 교수 개별인터뷰, 2019. 5. 4). 그밖에 다양한 평화관련 문화시민강좌, 세계대학생평화세미나, 학생 대상 평화여름학교 및 평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권상철 2013).

마의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히로시마에 의해 맥락화된 ‘평화’는 그 근원에 놓인 ‘왜’의 문제를 간과한다. ‘왜’ 히로시마는 원폭투하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왜’ 선정지가 될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왜’ 평화도시를 구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평화’를 담보로 지나치게 축소하여 접근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어떤 이유로든 히로시마의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히로시마의 ‘평화’의 접근방식은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편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보편적 공감을 유도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기억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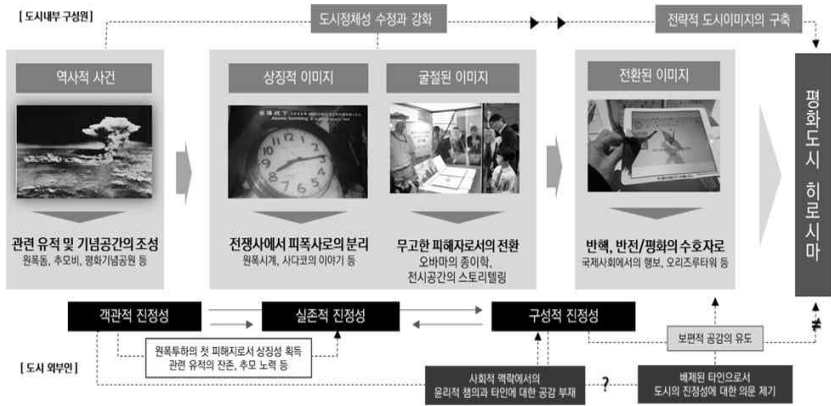
평화기념자료관과 오리즈루타워가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과정은 이러한 히로시마의 오류를 증명해 준다. 전쟁의 과정과 결과로 인한 원폭투하라는 사건을 히로시마의 피폭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전쟁’의 주체와 분리된 피해자로 설정한다. 현재의 일본이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과 독립적 성격이 강화된 구조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군국주의사회에서 군사도시로서 성장한 히로시마의 사회적 배경은 편의적으로 분리된 히로시마의 입장에 대한 반감을 일부 유발한다.

이와 같은 반감의 기저에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직간접적 피해자이며, 동시대의 타자인 우리에게 대한 배려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 속에서 분리된 독립체로서 ‘도시’가 사회적 타자로서 다른 국가나 도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통의 원인과 주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확대해 나가며 생기게 된 오류이다. 히로시마의 고통은 인류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아픔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의 연대인 동아시아의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때의 공감은 한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국가로부터의 공감을 얻는 문제로 해당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아픔과 입장에 대한 일본과 히로시마 측의 공감을 위한 노력의 부재에도 기인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공감은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닌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형성된다. 때문에 사회가 처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전제로 형성된 연대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히로시마가 일본 내부 혹은 도

시 내부의 고통에 집중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보편적 가치로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타인들은 히로시마가 아무리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한다고 한들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시의 재건에 그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 평화가치를 전파하는 평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전략은 유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생, 조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에 대해 편익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평화도시’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즉, 사회적 공감이 배제된 보편적 공감으로의 접근이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6> 히로시마의 도시이미지 구축과정에서 진정성과 공감의 획득 구조



IV. 결론

평화기념자료관으로부터 오리즈루타워로 이어지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시스토리텔링은 결국 ‘평화’와 ‘희망’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고 도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나 히로시마의 도시이미지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기억으로서 원폭사건은 도시에 닥친 재난인 동시에,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뒤섞여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이는 단편적인 도시 재난과 극복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억과 관련 유적들을 도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도시이미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원한다면 다차원적 시각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건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 사건의 다양한 주체들,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주체들 간의 관계, 도시의 내부와 외부의 시각 등 해당 사건과 관계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즉,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사회적 공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설명되는 이상들은 때때로 특수한 개인 혹은 도시의 차원의 상징성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편적 상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다층적인 주체와 대상의 문제에 근거해야 한다. 히로시마의 평화도시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 중 하나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도시’와 히로시마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와 오리즈루타워의 시설에서 소개하는 고통의 주체는 모호하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일본의 전후담론에서의 지적되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윤석정 2019).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히로시마 스스로가 가해자 없는 피해자로 존재하며 피해자로서 히로시마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굳이 가해자를 찾아낸다면, 우리 모두를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었던 ‘전쟁’ 정도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히로시마는 그들의 도시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피폭의 다시 한 번 분리하여, 자신들을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

앞서 공감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정, 합의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속성을 가진 도시의 경우,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이해나 희생, 도움이 요구되는 시혜적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문제가 도시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키워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히로시마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도시 전략의 일환으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은 동정(sympathy)에 호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히로시마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평화도시’를 희망한다면 보편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편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공감은 단지 외부인의 역할만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히로시마는 도시의 화자로서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히로시마에 대한 공감의 문제는 외부자로서의 우리의 공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공감을 고려하지 않은 히로시마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도시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주체 간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문화유산이나 역사,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 담긴 보편적 가치의 발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아우르는 타인과의 관계성에 근거한 상호 간의 공감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나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타자의 입장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행위를 통한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권상철 (2013). “창조도시의 지역적 변용: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 사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 5792-5799.
- 권혁태 (2009). “기억 공간의 재구축: 히로시마 평화공원, 개발과 평화이념 사이에서.”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조성을 위한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 166-185.
- 김지나 (2016). “도시장소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분석: 서울 청계천을 사례로”. 『한국 도시지리학회』. 제19권. 제2호, pp. 231-246.
- 문경희 (2017). “전쟁 고통의 재현과 평화: 일본 작가들의 평화그림책과 고통의 연대”. 한국민족문화. 제62권, pp. 75-116.
- 알라이다 아스만 (2011).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 어정연·여홍구 (2010).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제45권. 제6호, pp. 21-34.
- 유찬기·남기범 (2018).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제13호, pp. 75-100.
- 윤석정 (2019).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와 한국 배제.” 『아태연구』. 제26권. 제1호, pp. 41-71.
- 윤현호 외 (2011).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관광경영연구』. 제26권, pp. 267-286.
- 장원호 (2019). “공감 사회와 그 적들.”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 환동해지역을 중심으로』(2019 HK 국제학술회의집).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pp. 253-260.
- 정근식 외 (2015). 『포위된 평화, 굴절된 전쟁 기억: 히로시마 만의 군항도시 구레 연구』. 제이앤씨.
- 정수희 (2017). “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의 지역다움 연구: 한·일 공예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수희·이병민 (2015). “영상콘텐츠를 통한 창조적 장소이미지 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 일본 애니메이션 성지순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7권. 제1호, pp. 112-128.
- 제레미 리프킨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 조아라 (2013). “다크투어리즘과 관광경험의 진정성: 동일본대지진의 재난 관광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130-146.

- Ahmed, S. (2013).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Boulding, Kenneth E. (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otler, P. (1986). *Principles of Marketing (3rd 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6. No. 2, pp. 349-370.
- Yoshida, K., H. T. Bui and T. J. Lee (2016). "Does tourism illuminate the darkness of Hiroshima and Nagasaki?"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Vol. 5. No. 4, pp. 333-340.
- Zukin, S. (2010). *The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기타

오리즈루타워. <http://www.orizurutower.jp>. (2019년 1월 10일 검색)

히로시마시. <http://www.city.hiroshima.lg.jp>. (2019년 4월 2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9년 05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05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19년 06월 10일 |

| ABSTRACT |

**A Study on Empathy in Constructing City image:
Focused on Hiroshima Case**

Chung, Suhee

(Center for Glocal Culture and Empathetic Society Research
Institute of Creative Contents, Konkuk University)

Kim, Bongchae

(Center for Glocal Culture and Empathetic Society Research
Institute of Creative Contents, Konkuk University)

Lee, Byungmin

(Dept. of Digital Content & Culture, Konkuk Univ.)

Hiroshima has endeavored to emphasize the 'peace city' image to overcome the scars of atomic bombing. But the image isn't completely empathized. This study focused on the issue of 'empathy' in making image of the city through questions about the 'peace city' Hiroshima. We reviewed the background of the Hiroshima Peace Cities Initiative and conducted field surveys.

For representative image of the city, 'empathy' based on the 'authenticity' and 'social empathy' based on objective perspective are needed. The authenticity builds a empathetic image, which also extends to the city's identity and brand. In order to making image of the city, not only emotional empathy but also awareness of various subjects and social empathy should be considered.

▪ Keyword: City Image, Social Empathy, Hiroshima, Peace City, Dark Tourism